

진도개의 毛色

李 政 吉·金 敬 泰*

全南大學敎 獸醫科大學

(1993년 9월 6일 접수)

The coat color of Jindo dogs

Chung-gil Lee, Gyeong-tae Kim*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6, 1993)

Abstract : In the present communication literatures pertaining to the coat color of Jindo dogs, the natural monument of Korea, have been reviewed. It was reported that there were seven different coat colors in Jindo dogs. They are yellow, white, red, black, tiger-like, grey, and spotted. The yellow and red dogs have typical color markings called "Yibaik", and black dogs have yellow or white color markings called "Nenoonbagi".

All Jindo dogs, which have 7 different coat colors with typical color markings, could be found nowadays. The pictures of those Jindo dogs were taken and presented in this communication. It was felt that the coat colors of Jindo dogs should not be limited to yellow and white. And Jindo dogs should be judged not by their coat color but by their noble characteristics.

Key words : coat color, Jindo dogs, literatures, 7 different colors.

序 言

진도개는 여러가지의 우수성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개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당국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따라 심사를 하기 위한 표준체형을 정해놓았다. 그런데 표준체형 가운데 털의 빛깔, 즉, 모색은 일정한 기준을 갖지 못한 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¹

오래전부터 진도개는 여러가지의 모색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그 최초의 기록에는² 모색은 여러가지인데 주로 나타나는 색깔은 광택이 나는 赤茶色, 狐色, 黑色, 白色 그리고 白色바탕에 黑色 또는 赤色の 반점을 가진 것들이며 드물게 黃褐色바탕에 黑褐色의 띠를 두른 호랑이무늬와 비슷한 것이 있어 호랑이개라 부른다

고 적혀있으며, 이 기록은 현지의 나이가 든 주민들에 의하여 사실이라는 뒷받침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개가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모색이 단일화 되어야 하며, 품성보다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근래의 경향에 따라 우선 보기에 좋은 白拘와 黃拘만을 진도견으로 삼아 혈통을 고정하자는 주장 때문에 이 두 가지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을 가진 개들은 도태의 대상이 되어왔다.

위와같은 주장은 현지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의 본뜻에도 어긋나는 것이다.¹ 그래서 현지의 애견가들은 물론 진도 밖의 애견가들도 모색에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진도개의 품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황구와 백구 이외의 여러가지 다른 색깔을 지닌 진도개를 귀하게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著者들은 먼저 진도개의 모색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

을 고찰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진도견의 모색을 있는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는 문헌의 고찰에서 나타난 모색에 관련된 표현상의 혼선을 바로잡아 주고, 아울러 천연기념물인 진도견의 보호 및 육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다.

歷史的 考察

1940년 森가² 기록한 진도견에 관한 최초의 문헌을 보면 진도견의 모색은 여러가지인데 위에 열거한 색깔 이외에도 灰褐色, 濃茶色, 黃褐色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高木(1943)는⁴ 朝鮮犬과 그 毛皮라는 보고에서 진도견이 규정한 진도견의 색깔을 胡麻, 赤, 黃, 黑, 虎, 白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보다 훨씬 후에 수행된 연구에서 朴등(1970)은⁵ 총 919마리의 진도견을 대상으로 체형을 조사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황색과 백색이었고 흑색(7마리)과 회색(11마리)의 진도견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이어서 수행된 朴등(1971)의 연구에서도⁶ 黑狗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한편 李(1971)는⁷ 그의 책에 적색과 백색만을 진도견의 모색으로 적고 있다.

진도견과 관련된 행정당국의 조치를 살펴보면 1955년에 진도교육구청조례 제17호로 진도견보호조례가 제정되었는데⁸ 그 조례의 제2조에 진도견의 모색은 赤褐色(狐)이 가장 많고 백색, 흑색도 있으며 드물게 雜色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1966년에 전라남도 조례 제274호로 만들어진 진도견보호대책위원회조례에⁹ 규정된 진도견심사표준에도 털은 赤茶色으로 윤택이 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으며 그밖에 백, 흑, 황, 회 등의 모색이 있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967년에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이 제정되고¹⁰ 그 법으로 표준체형을 정하면서 진도견이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모색이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때문에 모색은 황색이나 백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10년 후인 1977년에 전라남도가 한국진도견심사의위원회를 열어 표준체형을 변경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는 진도 현지의 여론에 따라 모색에 융통성을 두려는 의도로 황색 또는 백색을 원칙으로 한다고 모색에 관한 규정을 고치게 되었다.¹

현지의 국민학교 교사인 文과 金(1978)은¹¹ “진도견의 순수혈통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연구”로 제24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그들은 진도견심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황구와 백구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흑색과 회색을 가진 진도견은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金(1979)은¹ 「珍島犬」이라는 그의 책에 진도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모색에 관한 주장이나 여론을 많이 기술하고 있다. 그

주장을 간추려 보면 황구, 백구, 흑구가 모두 진도견의 원종이며 흑구, 虎色犬, 狐色犬에 우수한 품성을 지닌 개가 많았다는 것이다. 진도에서 태어난 그는 ‘황구보다는 백구가 품성이 좋고 백구보다는 흑구나 虎狗가 더 품성이 좋은데 진도견을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가장 품성이 나쁜 황구와 백구만 남기려 든다’며 흑구나 虎狗 사육가들이 도태를 거부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재구라는 회색개나 검정개가 사냥개로 유명했던 자신의 어릴적 기억까지 기술했다. 또한 任(1985)은¹² 진도견에는 황색, 백색, 흑색, 재둥이색 등이 있다고 보고했다.

1986년에 저자중의 한 사람(李)이 참여한 연구에서는³ 진도에서 개의 주인들이 기록한 자료로 모색을 정리하기도 하였는데 3,887마리의 모색분포가 황구 54.7%, 백구 38.7%, 흑구 3.3%, 赤色犬 1.03%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黃白斑, 黑白斑, 黃黑斑 등의 반문이 2.4% 있었다. 그 다음 해에 실시된 연구에서도¹³ 황구와 백구 이외에 회색, 흑색 그리고 황갈색의 진도견이 관찰되었으며 虎斑도 두 마리나 있어 후에 발표된 논문¹⁴ 재료가 되기도 했다.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 덕분에 진도견이 전세계의 텔레비전에 소개되는 영광을 누렸다.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는 진도견을 전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4월 8일에 '88 우수진도견 선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같은 달 17일에는 '88 우수진도견 선발대회'를 열어 170마리의 진도견을 우수견으로 선발했다. 9월 11일에 다시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거리축제 우수진도견 퍼레이드 선발대회'를 열어 우수견 53마리를 선발한 다음, 9월 15일에 종묘에서 여의도 광장까지의 거리축체에 참가시켜 그 축체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11월 6일에는 진도견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한 것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88 진도견 큰 잔치'를 열어 우수진도견을 선발했다. 한 해에 일어난 여러가지의 진도견 행사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진도견의 모색에 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위에 기술한 세미나에서 전은¹⁵ 진도견의 모색에 황색, 백색, 흑색, 흑황색, 재색, 호반색 등이 있음을 소개하였고, 그에 따라 개최된 '88 우수진도견 선발대회'에서는 흑구가 세 마리나 우수견으로 선발되었다.¹⁶ 또한 올림픽의 거리축체에 참가한 53마리의 진도견 중에는 두 마리의 흑구와 한 마리의 호반이 끼어 있어서 우리의 고유견인 진도견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¹⁷ 그리고 진도견 큰 잔치에서 선발된 개 가운데는 황구와 백구 이외에 적색의 개도 포함되어 있다.¹⁸

진도개의 毛色

개의 털 빛깔은 성장함에 따라 달라지며 완전히 성장하였을 때 제 색깔을 지니게 된다. 진도개도 예외가 아니며 어렸을 때의 모색과 成犬이 되었을 때의 털 색깔이 크게 다른 경우가 흔하다. 여기에 소개하는 진도견의 모색은 여러 해에 걸쳐서 저자들이 직접 관찰한 것으로서 대부분이 진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성견의 모색이며, 진도가 아닌 곳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는 진도개의 체형과 품성을 지닌 것들만 간주했다. 아울러 각종의 진도견 선발대회에서 우수견으로 뽑힌 개의 털 빛깔을 참조하였다.

黃色 : 진도개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지니는 색깔로서 이 색깔을 지닌 개는 黃狗 또는 누렁이라고 부른다(Fig 1). 가을 들판의 잘 익은 벼의 색깔과 같이 맑고 밝은 황금색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짙은 노란색을 가진 개와(Fig 2) 옅은 색을 가진 개도 있다. 황구라도 온몸의 털이 모두 황색인 것은 드물고 흔히 등쪽에 검은 털이 약간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등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색깔이 옅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두 눈 위, 양쪽 볼, 턱 밑, 가슴, 배 등에 희미하게 흰색이 들어있는 황구가 많은데 이런 개는 마치 흑구 중의 '네눈박이'와 유사하며 '裏白'이라 부른다(Fig 3).

白色 : 황색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색깔이며 이런 색깔의 개를 白狗라고 부른다(Fig 4). 진도개는 귀, 등쪽, 오금, 꼬리 등에 황색털이 약간 섞여 있어 은은한 흰색이다. 몸의 털은 흰색이지만 귀 부위의 털은 대개 황색이다. 우유빛을 띠는 순백색의 개는 일본의 아끼다와의 혼혈견에 많다(Fig 5).

赤色 : 적색 또는 광택이 나는 赤茶色の 개는 지금까지는 황구로 분류되었다.¹⁹ 그러나 황구로 분류하기에는 그 색깔이 너무 다른데다가(Fig 6) 진도견에 관한 오래된 기록에서^{2,4,7} 뿐만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조사³ 그리고 우수진도견의 선발에서도¹⁵ 그 존재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색깔을 지닌 개는 앞으로는 赤狗로 불러야 한다.⁹ 적구 중에는 황구와 마찬가지로 등이나 꼬리에 검은 털을 가진 것이 많고, 裏白도 존재한다.

黑色 : 黑狗라고 불리는 검은 색의 개는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2,4} 진도견으로서의 稟性도 아주 우수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흑구는 지금도 존재하여^{3,13} 애견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¹⁵⁻¹⁷ 흑구에는 전신이 검은 개(떡구, Fig 7)와 앞가슴과 드물지만 발에 흰점을 가진 개(적발이떡구)가 있는가 하면 두 눈 위, 양쪽 볼, 턱 밑, 가슴, 배 등에 백색 반점(백색네눈박이)(Fig 8)이나 황색 반점(황색네

눈박이)(Fig 9)을 가진 네눈박이 개가 있다. 전이¹² 분류한 흑황색의 진도개는 황색네눈박이로 보는 것이 좋다. 흑구의 네눈박이는 털 빛깔의 배합이 황구나 적구의 이백과 아주 비슷하다. 모든 흑구의 검은 털은 햇빛에 반사되었을 때 붉은 빛을 띠어야 한다.

虎色 : 호랑이와 비슷한 무늬를 가진 개여서 虎狗 또는 虎斑이라고 부르는데 황갈색 바탕에 흑색의 반점이나 무늬를 띠고 있다. 바탕색이 옅은 황색인 것도 있고¹¹ 짙은 갈색인 것도 있다(Fig 10). 흑구와 함께 호반도 아주 우수한 진도견의 품성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養鷹記에 기록되어 있는 百濟에서 日本으로 건너간 사냥개가 호반이었으리라는 사실은 이미 보고되었다.¹¹

灰色 : 이 색깔은 오래된 문헌에는 狐色² 또는 胡麻¹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재색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¹² 야생동물의 보호색인 이 색깔은 산토끼, 너구리, 여우 등이 지니는 색깔인데 백색, 흑색 그리고 황색의 털이 섞여 오묘한 조화를 이룬 것이다(Fig 11). 이 색깔의 개는 재구라고 부르며 지금은 매우 드물게 보이지만¹³ 우수한 진도견의 품성을 지닌 개로 알려져 있다. 한편 근래에 일부의 애견가들이 황구 가운데 검정색의 털을 많이 가진 개를 재구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바둑이색 : 이것은 털 색깔을 나타낸다고 보다 털 색깔의 배합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흰 바탕에 검거(검정바둑이)나 누런(황색바둑이) 반점이 큼직큼직하게 들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진도개의 모색 중에 가장 희귀한 색깔이라 할 수 있는데 森의²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포인타의 무늬와 유사하여(Fig 12) 흔히 가정에서 바둑이라고 부르는 아주 귀여운 개다.

結 言

천연기념물인 진도개는 오래전부터 여러가지의 모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왔다. 그런데 1967년에 진도개가 세계적인 공인을 받으려면 모색이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황구와 백구만을 진도견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그 바탕에 우수한 품성을 지닌 다른 색깔의 개들은 도태의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도 다양한 진도견의 털 색깔을 볼 수가 있다.

이 보고에서는 먼저 진도개의 모색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문헌의 고찰에서 나타난 색깔을 가진 진도개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진도개의 다양한 털 빛깔을 소개하였다. 진도개의 모색은 크게

黃, 白, 赤, 黑, 虎, 灰, 바둑이색 등 7가지로 구분된다. 황구와 잿구에는 裏白이라는 모색의 배합이 있다. 그리고 흑구에는 먹구, 짐박이먹구, 백색네눈박이, 황색네눈박이가 있고, 바둑이색에는 검정바둑이와 황색바둑이가 있다. 이러한 분류는 지금까지 赤茶色, 狐色, 胡麻, 흑황색, 황백반, 호반색 등으로 표현된 털색깔의 혼선을 바로잡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진도에서는 지금도 개를 놓아 기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육방법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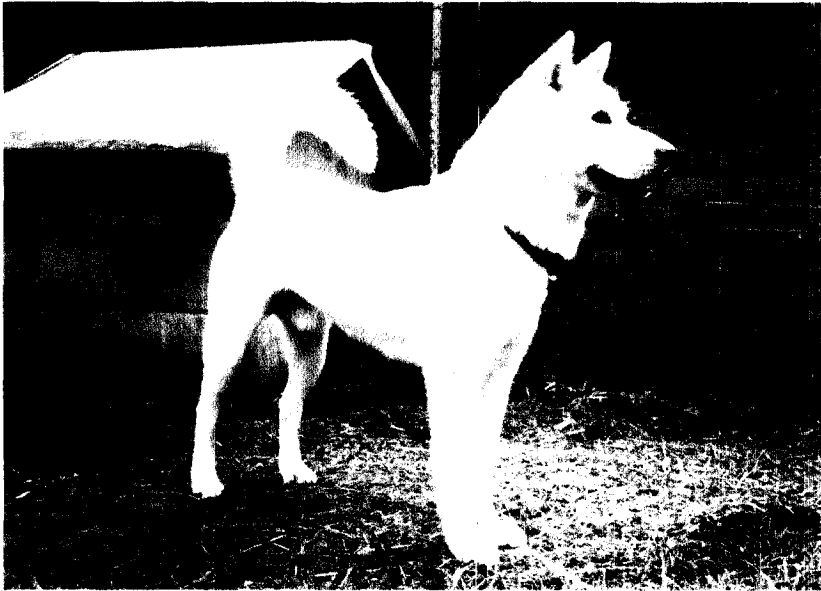
그 결과 모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천연기념물이건 지정된 장소를 떠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도개에도 인위적인 조치가 가해지면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모색의 제한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 더구나 흑구, 호반, 잿구 등에서 우수한 진도견의 품성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구와 백구만을 진도견의 표준으로 삼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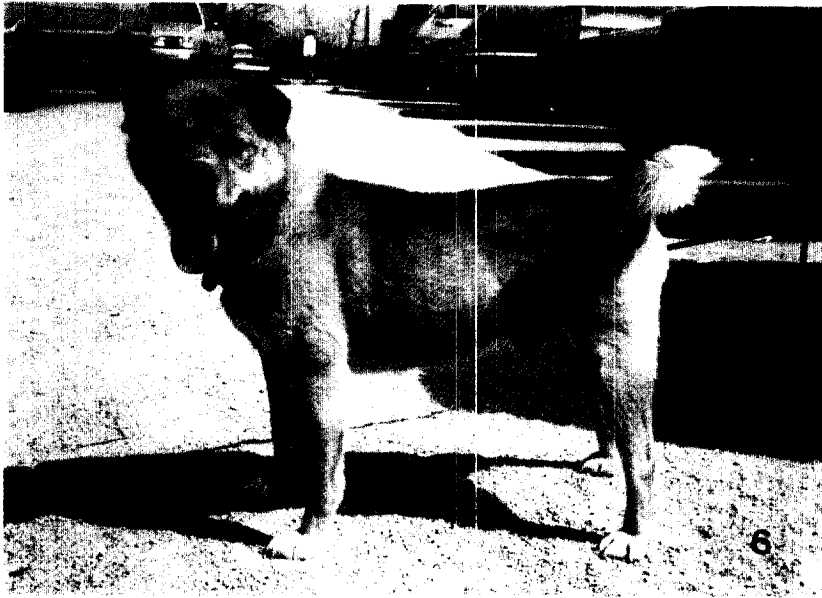
Legends for figures

- Fig 1. A female, yellow Jindo dog.
- Fig 2. A male Jindo dog, deep yellow.
- Fig 3. A female, yellow Jindo dog, "Yibaik".
- Fig 4. A male, white Jindo dog.
- Fig 5. A male, white dog similar to white Jindo dog, but is considered to be mixed with Japanese Akita.
- Fig 6. A male, red Jindo dog.
- Fig 7. A male, black Jindo dog. "Mugoo."
- Fig 8. A female, black Jindo dog. "Bacsæk Nenoonbagi."
- Fig 9. A male, black Jindo dog. "Hwangsæk Nenoonbagi."
- Fig 10. A male, tiger-like Jindo dog. "Hoban."
- Fig 11. A female, grey Jindo dog.
- Fig 12. A male, spotted Jindo dog. "Badoo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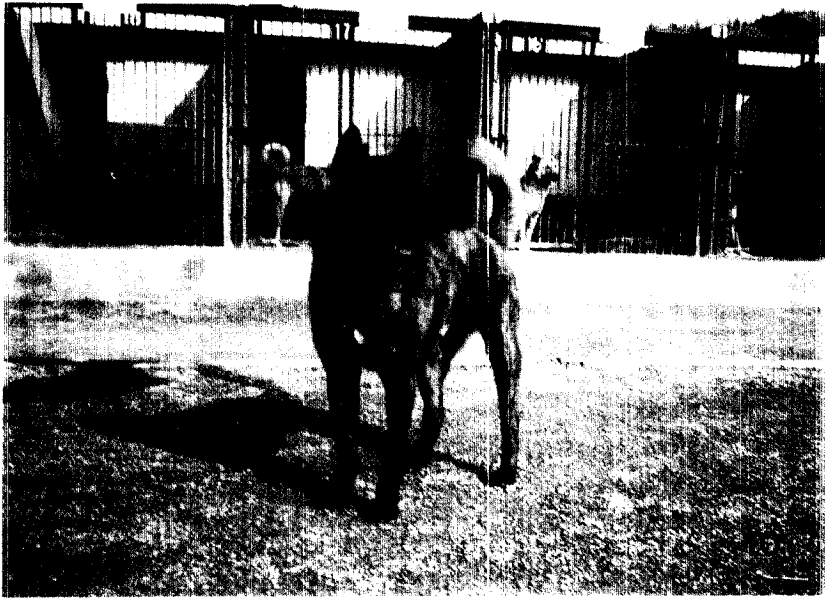














參 考 文 獻

1. 金井昊, 珍島犬. 光州: 全南日報社 1979 : 32, 54~56, 64, 120~121.
2. 森爲三. 珍島犬.(朝鮮固有犬) 日本犬 1940 : 9 : 38~44.
3. 金允奎, 金載弘, 李政吉 등. 珍島犬의 保護育成에 관한 研究-基礎調査. 진도개보호육성위원회 보고서. 전라남도 진도군 1986 : 27~28.
4. 高木五六. 朝鮮犬と 其の毛皮. 朝鮮總督府 林業試驗場 報告 1943 : 34 : 1~39.
5. 朴鍾萬, 金容植, 全宇福. 한국진도견에 관한 연구. 1970년도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1970 : 12.
6. 朴鍾萬, 康炳奎, 李政吉. 한국진도견에 관한 연구. 1971년도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1971 : 18.
7. 李相旰. 狩獵秘話. 서울: 박우사 1971 : 333.
8. 珍島教育區廳條例 第17號-天然記念物「珍島犬」保護條例, 1955.
9. 全羅南道條例 第17號-全羅南道珍島犬保護對策委員會條例 1966.
10. 법률 제1875호-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1967.
11. 文在昌, 金相一. 진도개의 순수혈통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연구. 제24회 전국과학전람회 문교부장관상 수상작 1978 : 20~21.
12. 在炳喆. 한국의 진도개. 光州: 三洋出版社 1985 : 72.
13. 李政吉, 韓邦根, 金永柱 등. 珍島犬의 生理的 特性에 관한 研究. 전라남도 진도군 연구보고서 1987 : 12 : 13.
14. 李政吉, 柳甲鉉. 珍島犬-우리나라의 固有犬. 대한수의학회지 1988 : 28 : 405~408.
15. 전창수. 진도견의 표준 및 해설.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주최 '88 우수진도견 선발을 위한 세미나 제3주제.
16. 88 한국우수진도견 도감.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 42, 47.
17. 88 서울올림픽 문화예술회관 거리축제 우수진도견 퍼레이드.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 17.
18. 88 진도견 큰 잔치.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 20.
19. 田名部雄一. 珍島犬-特に 日本犬とのつながり. 愛